



광주시 수도관 노후 ... 땅속으로 줄줄 새는 수도물 年 133억

상수도 만성적자 요금인상해 '땀질'

누수율 11% ... 광역시 중 최고
노후수도관 교체 수년째 방치
수도료만 8월부터 7.5% 올려

광주시가 수도물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만성적자를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충당하는 등 '땀질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이은 요금인상에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수도계량기 옥외 설치 등 시민의 건강·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은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요금인상의 적절성도 논란이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7.5% 인상하는 등 3년 동안 계속 올린다. 지난 2013년 평균 6.42% 인상 후 불과 2년 만이다.

시는 깨끗한 수도물을 위한 시설 현대화를 하려면 적자인 상수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정작 상수도의 적자 폭을 줄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노후 상수도관으로 매년 100억원이 넘는 수도물이 땅속으로 줄줄 새고 있지만, 이를 방치한 지 오래다.

광주의 총 상수도관 3733km 중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은 1160km로 전체의 31.1%(전국 평균 26.6%)에 이른다 보니, 전국 특·광역시자치단체 중 누수율도 11%로 가장 높다. 광주에서 연간 누수되는 수도물만 2000만㎡ 안팎으로, 일반가정 수도요금 기준(누진율 적용) 133억여원에 이르는 수도물이 땅속에서 버려지고 있다. 반면 서울시 등은 3%대에 불과하다.

광주, 보육료 대란 불가피 ▶6면

안심전환대출 2차 출시

은행장구 고객 크게 줄었다 ▶14면

노후 상수도관은 정부에서 1994년부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수도관으로 사용을 금지한 아연도(금) 강관 등으로 돼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감시원은 또 최근 노후 수도용 배관(예상 예측시 도장)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A(내분비계 악영향)가 미국 허용기준의 2.6배까지 검출됐으며 환경부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광주시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 개선 사업은 수년째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투입된 예산도 2012년 40억원, 2013년 33억원, 2014년 17억원 등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광주시는 또 서울시 등이 시민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행중인 수도계량기 옥외설치 사업 등에 아예 시도조차 않고 있다. '시민시장'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아파트를 제외한 광주지역 상수도 계량기 13만8456대 중 상당수가 옥내(건물 안)에 설치된 탓에 검침과정에서 무단주택집입, 누수 방치, 수도요금 추정 부과 등의 각종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만 제때 검침을 못한 탓에 장기누수 등의 민원으로 총 4423건, 3억8100만원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기도 했다. 이마저도 적극 항의한 시민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수도 시설인 용연·지원정수장 공사와 도수터널 공사 등에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 다른 정비 사업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상록회관 벚꽃 만발

30일 오후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벚나무 군락지에서 지난 29일부터 피기 시작한 벚꽃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벚꽃 개화일은 29일로 이는 평년보다 4일 빠르고 지난해보다 1일 늦은 것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야권에 떨어진 '정동영 폭탄'

4·29 보선 서울 관악을 출마 선언 ... 새정치 긴장, 새누리는 반색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분열의 '뇌관'이 터졌다.

정 전 의원의 출마로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판도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4·5면〉

정 전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악을 선거는 '이대'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이라며 "저를 그 도구로 내놓아 정

면승부를 벌이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국민모임과 정동영의 승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 되고 정치판에 지각변동을 일으켜 여당과 야당 모두 정신 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모임 창당에 참여한 정 전 의원이 출마를 결정, 야권 분열이 현실화하면서 관악을 지역구를 당선권으로 분류했던 새정치연합의 보궐선거 전략에 막대한 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모임 측은 관악이 전통적인 야당의 텃밭인데다 정 전 의원의 인지도가 월등히 높고, 관악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호남 출향민의 친노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전 의원의 출마가 광주 서울 등 타 보궐선거 지역에 연쇄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 전 의원의 출마가 관

악을 선거는 물론 재보선 구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평가 절하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불안전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관악을 선거지원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의 출마로 관악을 선거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이 현실화될 때 내심 반색하면서도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권의 분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야권이) 지난 선거 때 중복 세력과 손잡지 않았다.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며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도지사도 재난선포권 갖는다

앞으로 재난 때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선포권을 부여해 인력과 장비 동원 등 각종 응급조치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한다. 또 화재, 붕괴, 폭발, 테러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도 생계지원을 비롯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처, 안전마스터플랜 발표
인력·장비 응급조치 신속하게

국민안전처가 기존의 대형 재난 분석과 전문가·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확립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예방 인프

라확충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등 5대 전략과, 이로부터 도출된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현재 자연재난 위주인 구조체계가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 사고와 테러를 아우르는 사회재난으로 확대돼 피해 주민은 긴급생계비와 시설물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01@연합뉴스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광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
구역 과정 개강
문의: 062) 605-1112 광신대 평생교육원

HERA

나르시스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생명력
헤라 시그니아 크림

고귀하고 감인한 아름다움의 상징 나르시스-그 절정의 생명력을
피부에 선사하는 안티에이징의 정수, 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스템셀이 피부에서 피어나는 순간
거울 속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통업체명이나 이모티콘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료요금부담) www.hera.co.kr